

# 전통 제의 · 현대 연희 만남 '지신지신'

마당놀이 8~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교류 협력 공연

전주에서 전통과 흥이 살아 숨 쉬는 마당놀이 한 판이 벌어진다. 이에 따르면 합작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여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공동 주관하는 마당놀이 '지신지신'이 오는 8~9일 저녁 7시 30분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지신지신'은 전통 제의 '지신밧기', '당산제' 등 전통 제의와 민속신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공연으로, 전주의 역사성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창작됐다. 삼신할미, 성주신, 우물신 등 마을의 수호신들이 무대에 등장해 관객과 소통하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와 흥겨운 연희가 어우러진다. 공연은 전통 마당놀이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이들의 웃음, 어른들의 공감, 종물장단 위에 펼쳐지는 익살스러운 몸짓과 대사는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마을신들과 출연자들이 객석을 자유롭게 오가며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장면은 무대와 일상의 경계를 허물며, 마당놀이 특유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통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지신지신'은 전주의 전통과 공동체의 힘을 무대에 구현한 작품"이라며 "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마당놀이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네이버, 예스24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작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마당놀이 '지신지신' 포스터  
(063-236-1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무형유산 울림으로 되살아난 광복의 기억

국립무형유산원, 15~16일 광복 80주년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15일과 16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연은 '광복'과 '무형유산'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견디며 계승되어 온 전통예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항과 연대, 회복의 이야기를 무대에 펼친다. 공연은 국권 침탈의 절망을 표현한 '시일야방성대곡' 낭독으로 시작해 유관순 열사와 항일 민족의 외침을 중심으로 민족의 독립 의지를 담은 판소리와 탈놀이를 이어나간다. 이어 제주 해녀와 여공들의 항일 투쟁을 통해 전국으

로 확산된 민중 저항의 흐름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서도민요와 군무를 통해 광복의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한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판소리(홍보가) 정순임 보유자, 서도소리 김광숙 보유자, 동래야류보존회, 제주민요보존회, 전주어린이판소리합창단, 정은혜 소리꾼 등이 참여해 무형유산의 예술성과 정신을 광복이라는 주제에 맞춰 생생히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6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미래를 위한 통합과 화합이라는 현대적 의미를 전한다. 춘향가의 눈대목을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국악관현악, 독창, 듀엣, 합창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펼쳐지며,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기악단·무용단·연희부와 내부 단원들, 외부 객원 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합창은 나주시립합창단이 맡아 무대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제작진으로는 유수정(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송혁규(연출, 백제예술대학교), 이태영(지휘, 한양대학교)이 함께하며, 작곡은 유민희, 대본과 구성은 문숙현이 맡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15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오라토리오 시즌 I '앙코르-사랑, 愛, LOVE'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5년 1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초연되어 관객들에게 호평받은 오라토리오의 앙코르 공연으로,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특별 음악회는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가를 바탕으로, 국악과 서양 음악이 장르를 넘나



들며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광복절이 지닌



'고창한 여름밤 콘서트' 12일 개최

고창군이 오는 12일 저녁 7시30분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YB(윤도현밴드), 몬리를 초청한 '고창한 여름밤 콘서트'를 연다. 나은곡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고창읍성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여름밤 콘서트'를 펼쳐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활력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연료는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고창=김영성 기자

# 남원시, '제11회 동편제국악축제' 새출발

남원시는 오는 9월 13일,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만나는 무대인 제11회 동편제국악축제 새 출발을 알리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오랜 세월을 품은 동편제 소리의 체보 위에 풍자대 감각을 더해 재해석한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국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정자마루 콘서트'는 자연 속 정자에서 펼쳐지는 이 무대는 관객들이 국악의 맑고 깊은 결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지리산 자연을 배경으로 한 정자마루에서의 시간은 관객에게 국악의 미학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씨의 출연으로 국악의 성자인 남원에서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판소리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동편제 국악의 대표적 전승자이자 우리 시대의 거목, 안숙선 명창은 제11회 동편제 축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며 축제의 뿌리를 지켜온 상징적인 인물로, 올해도 축제의 홍보대사로서 자리를 함께하며 판소리의 정수와 예술적 권위를 축제의 무대에 더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푸드트레이가 운영되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더불어 남원역과 축제장 간 이동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



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 티켓 예매 링크는 이달 5일 오전 9시부터 네이버에서 공개된다. 공연은 2025년 9월 13일 오후 2~5시 정자마루 콘서트(정자마루 일대), 저녁 7~9시 소리열전(황산대첩비지)이고, 접수 기간은 9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정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연 관련 문의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와 케이아트크리에이티브(http://kartscreative.com)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7)

# 장구소리

- 오상근 -

"강동식이라고 합니다." 다소곳이 손을 무릎 앞으로 모으며 동식은 이름을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연습장에서 들려오는 장구 연주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넙 ~ 넙 ~ 쿵파 쿵, 넙 ~ 넙 ~ 쿵파 쿵' 동식도 알고 있는 휘모리장단이다. '강 선생님, 여기 장구를 배우러 오신 거죠?' 동식은 하며머뭇 '네'라고 대답할 뻔했다. 장구 소리가 동식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잘 오셨어요." 내가 '네'라고 대답을 했나? 이명주는 새로운 감성을 맞는 강사님처럼 어린이를 대하듯 온화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고창 농악은 영무장 농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요. 영무장은, 전남 영광과 고창 무장 그리고 전남 장성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고창 농악은 간이 딱 맞는다고 그래요. 아예 지방은 너무 느리고 위 지방은 너무 빠르데 우리 고창 농악은 그 중간이라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아 귀에 속속 들어오고 사위가 아주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으로 표현해서 간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거죠." "네에....." 동식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학습하는 아동처럼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며 모범생의 바른 자세를 연출하고 있었다. 건달로서 모양 빠지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명주는 브리핑하듯 고창농악의 최근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잔뜩 꺼지듯 조용히 서물어가던 고창 농악이 부활하게 된 건 1981년 고창 오거리 당산제가 계기가 되었다. 당산제에 필수요건인 농악대가 필요했고 당시는 정음 등지에서 농악대를 섭외해서 당산제를 거행했다.

이후 고창 지역의 농악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모여져 1985년에 고창 면 지역에서 농악을 친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려낸 뒤 고창농악단을 결성함과 동시에 면 단위로 그동안 진존해 있던 농악대가 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 그런 설명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말이요! 동식은 이렇게 말을 해야 했으나 꽃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소곳이 앉아 지루한 이명주의 설명을 다 듣고 있었다. 이명주는 동식이 고창에서는 알아주는 조지폭력배라는 걸 감지했는지 평소 수강생으로 입문하는 사람에게 하는 설명보다도 더 섬의 있게 고창농악을 소개했다. "전화번호 주세요." 장황한 설명이 끝난 후 이명주는 동국을 바둑 동식의 전화번호까지 말했다. "전화 드릴 테니까, 오세요." 동식이 이곳 전주관에 행차하여 치룬 일정이 무슨 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이명주는 전수관 현관까지 나와 동식을 배웅해줬다. 동식은 현관까지 나와 준 이명주가 황공한 마음에 앞장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마치고 건물을 나와 아우디에 올랐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거지?" 조용히 혼자 있게 돼서야 이곳에 온 목적이 자각되었다. 아차! 그렇다고 다시 차에서 내려 이명주를 불러 동식이 숨기고 있던 몽둥이를 보이고 협박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는 없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산통 다 깨진 것이다. 이명주는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중 선명하게 동식의 머리에 새겨지는 말들이 있었다. "농악을 잘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굿패나 무업에 종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굿패가 무당 일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굿하는데 꼭 굿패가 함께 했거든요."

# 전주문화재단, '콩밭에 핀 인문학' 열린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12일과 19~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벽문화관에서 '콩밭에 핀 인문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예로부터 전주는 콩나물, 된장, 청국장 등 콩을 활용한 음식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특히 서북태(쥐눈이콩)를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의 식문화 인문학적으로 조명하고, 토종콩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식량자급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강연형 인문학 특강과 체험형 인문학 조리 체험으로 구성, 각각 2회씩 진행된다. 먼저 12일과 19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인문학 특강이 열린다. '함씨네 토종콩식품'의 함정희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인류에게 쥐눈이콩이란 △식량자급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지는 인문학 조리 체험은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한벽문화관 조리체험실에서 운영된다.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의 김재운 홍보이사가 강사로 참여해 콩나물 두투치기와



콩나물전을 시연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조리해 보는 체험활동을 갖는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스노우볼 만들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세 차례에 걸쳐 세미나실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스노우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체험행사는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회차 당 2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7~12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독도 스노우볼 만들기'는 독도 모형을 바다에 고정하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한 후 태극기를 꽂아 장식하면서 액체와 글리터를 넣고 돌려 마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독도의 모습을 이해하고, 태극기를 꽂는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